

증시 호황에 증권사 1분기 순익 4조3000억 '사상 최대'

주식 거래대금 333% 급증에 수탁수수료 동반 증가 1분기 만에 지난해 연간 순이익의 절반 가까이 벌어

올해 1분기 주식시장의 역대급 호황에 힘입어 증권사가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 61곳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4조3271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4428억원)보다 77.1% (1조8843억원) 증가했다.

직접 분기(1조8606억원)와 비교하면 3개월 새 132.6% (2조4665억원) 늘어난 규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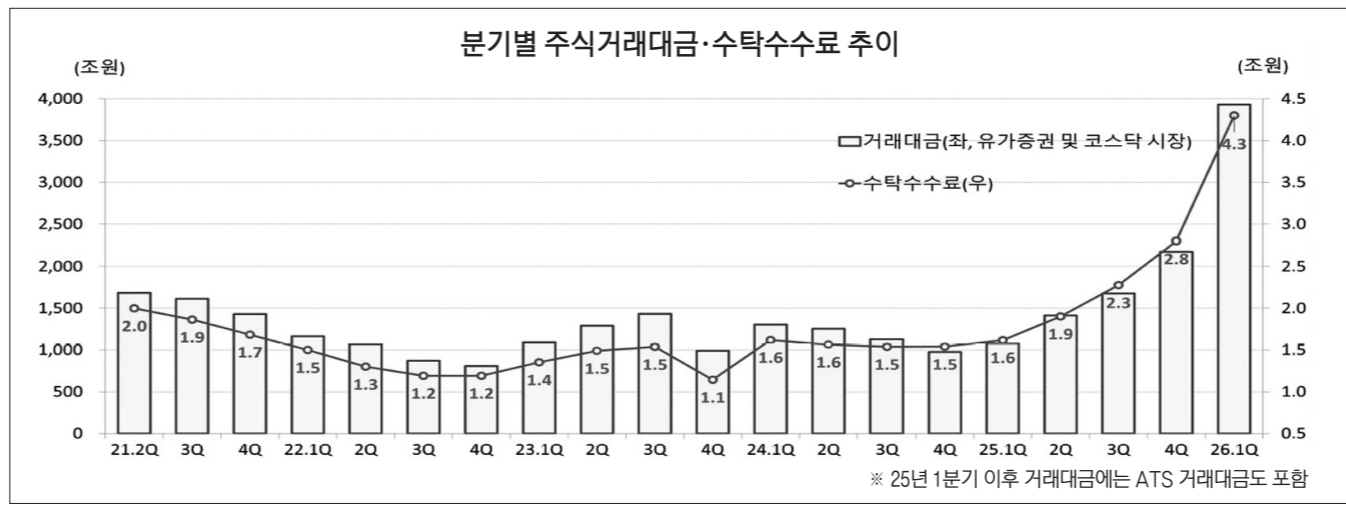
특히 1분기 순이익은 연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작년 당기순이익(9조6455억원)의 44.9%에 달한다. 한 분기 만에 작년 연간 순이익의 절반 가까이 벌어들인 셈이다.

수수료 수익은 6조6929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3646억원) 대비 3조3283억원(98.9%) 늘었다.

국내 주식 거래대금이 늘면서 수탁 수수료(4조3020억원)가 전년 동기보다 6835억원(165.8%) 급증해 실적 대부분을 차지했다.

실제 대체거래소(ATS)를 포함한 유가증권시장 분기 거래대금은 2775조원으로 전년 동기(641조원) 대비 333.1% 급증했다.

자산관리 부문 수수료는 펀드판매·투자일임 수수료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89.4% 늘어난 6721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기업금융(IB) 부문 수수료는 9445억



원으로 전년 동기(9437억원)와 유사한 수준에 머물렀다. 증권사의 자기매매 손익은 4조1026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1368억원)보다 30.8% 증가했다.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주식·펀드 손익은 국내 지수 상승 등으로 7조

2046억원 늘었다. 반면 파생관련 손익이 3조9396억원 감소했고, 채권 손익도 시장금리 상승으로 2조2993억원 감소했다.

기타자산 손익은 1조40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29억원(-15.6%) 감소했다. 신용공여 이자수의 확대도 대출 관련 손익

은 5749억원 증가했으나, 원·달러 환율이 1510원대로 치솟으며 외환 관련 손익은 7678억원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1분기 기준 증권사 자산총액은 1098조4000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154조원(16.3%) 증가하며 1000조원을 넘어섰다.

재무건전성 지표인 순자본비율은 평균 99.5%로 작년 말(914.6%) 대비 84.9%p 상승했다. 모든 증권사의 순자본비율은 규제 비율(100% 이상)을 웃돌았다.

평균 레버리지비율은 같은 기간 24.6%p 상승한 718.3%로 모든 증권사가 규제 비율(1100% 이내)을 충족했다.

선물회사 3곳도 증시 호조로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326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분기(224억3000만원)보다 45.6% 증가한 규모다.

금감원은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 환율 및 시장금리 상승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유동성 규제 체계 개선 등 리스크 관리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연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은행권 '빚투' 차단 총력전... 신용대출 한도 축소·접수 제한

국민·하나, 신규 한도 1억원... 신한, 일별 접수량 관리 우리, 갈아타기 상품 접수 중단... 농협, 우대금리 축소

은행권이 증시 호조에 따른 '빚투'(빚내서 투자) 급증세에 대응해 신용대출을 조이고 있다.

과도한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증가 변동성을 확대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금융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금융당국 우려에 앞다퉈 대응책을 내놓는 분위기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용대출 한도를 제한한다.

신용대출 신규 신청 시 차주의 연 소득과 관계없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최

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마이너스 통장 연 상 시 미사용 한도 감액도 강화한다.

하나은행은 기존에도 만기 연장 시점 에 한도 미사용 계좌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감액하고 있었지만, 상품 특성에 따라 일부 예외를 허용했다.

이런 예외 허용 조항을 금지하고 규정 에 따른 한도 감액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향후 신용대출 추이를 점검해 추가 조치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도 오는 15일부터 '신용대출 선제적 관리방안'을 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대면·비대면 신용대출 합산 일별 접수량이 내부 관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비대면 신용대출 신청을 제한하기로 했다.

서민금융대출과 상생대환대출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상품은 접수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약정금액 3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계 신용대출 중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에는 약정기간 및 만기 직전 3개월 기준 한도사용률이 10% 미만인 계좌를 대상으로 만기 연기 시 최대 20% 한도를 감액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최근 신용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가계대출을 안정적

으로 관리하기 위해 선제적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농협은행은 오는 15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적용하는 우대금리를 각각 0.2%p, 0.1%p씩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출 금리 하단이 올라갈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신규대출 시 일반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1억원, 마이너스통장 최대 한도를 5000만원으로 각각 제한한다.

이런 조치는 별도 안내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며, 서민금융상품과 정책성대출 등 일부 상품은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앞서 우리은행도 전날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하고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핀다, 토스 등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해 유입되는 모든 신용대출 접수를 막는다고 밝혔다.

일부 은행이 다음 주부터 신용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만큼 당장 이날부터 대출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런 조치들은 금융위원회와 시중은행이 신용대출 증가 상황과 관련해 논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머지 시중은행들도 신용대출 자율관리 방안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확대하자 비상관리체계를 가동하고, 목표 미준수 금융사를 매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광 창업 인재 아카데미' 광주관광공사, 참가자 모집

광주의 관광 자원을 시장성 있는 상품으로 바꿀 예비 창업자를 찾는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광주관광공사는 지역 관광 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6 광주 관광 창업 인재 아카데미' 참가자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광주가 가진 역사·문화·생활 관광 자원을 새 상품으로 발굴하고, 예비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 모델로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순 교육을 넘어 시제품 개발, 시장 검증, 홍보와 판로 개척까지 있는 것이 핵심이다.

모집 규모는 30명 안팎이다. 광주 관광 자원에 관심 있는 예비 창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개인뿐 아니라 최대 3명으로 구성된 팀도 참여할 수 있다. 기획, 디자인, 마케팅 등 역량이 다른 예비 창업자들이 협업해 관광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참가를 원하는 예비 창업자나 팀은 오는 24일 오후 4시까지 광주관광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선발된 참가자는 오는 7월까지 광주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총 26시간의 실무 교육을 받는다. 교육은 솜뿔 관광 마케팅 전략, AI 활용 로컬 관광 상품 기획,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IR 피칭 역량 강화 워크숍, 전문가 1대1 멘토링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 종료 후 심사를 통과한 참가자에게는 총 2000만원 규모의 관광 상품 개발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관광기념품과 로컬 굿즈 개발, 로컬 가이드 프로그램 운영 등 관광 상품 시제품 제작과 실증에 쓸 수 있다.

광주관광공사는 오는 9월 성과공유 콘테스트도 연다. 우수 3개 팀에는 총 5000만원의 상금과 광주관광공사 사장상이 수여된다.

후속 지원도 불린다. 콘테스트 우수 참가자는 맞춤형 창업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창업 페스티벌과 지역 축제 참가를 통한 상품 홍보, 판로 개척 기회도 제공된다. 2027년 광주 관광 성장단계 지원 사업 공모 신청 때 기점을 주는 방안도 연계된다.

정재영 광주광역시관광공사 사장은 "관광 창업 인재 아카데미는 지역 관광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인 관광 상품 발굴과 예비 창업자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며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과 예비 창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전남 식품기업, 유럽시장 문 두드린다

도, 프랑스 파리 국제식품박람회 참가기업 공모

전남도가 세계 최대 규모 식품박람회 가운데 하나인 '2026 프랑스 파리 국제식품박람회(SIAL Paris)' 참가기업을 모집하며 지역 농수산식품의 유럽시장 진출 확대에 나선다.

전남도는 오는 17일까지 프랑스 파리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할 도내 농수산물 가공식품 기업 4개사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프랑스 파리 국제식품박람회는 오는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다.

격년제로 개최되는 이 박람회는 전 세계 7200여개 기업과 15만명 이상의 바이어가 참가하는 글로벌 식품 전문 전시회로, 식품·음료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확인하고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국제 행사로 평가받

고 있다. 전남도는 수출 경쟁력을 갖춘 지역 농수산물 가공식품 생산·유통기업 4개사를 선정해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박람회 부스 임차료와 기본 장비 전액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100만원의 왕복 항공료도 실비로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현재 전남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농수산물 가공기업이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제품 개발과 포장 디자인이 완료된 기업이어야 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전남도 수출정보망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중진공 호남연수원, 산업안전 정책연수 '성황'

호남권 6개 권역 순회 운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은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한 '중소기업 산업안전 정책연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

다. 특히 광주에 집중된 교육 인프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 순회 방식으로 운영됐다.

연수는 전남권(2월 24일)을 시작으로 광주권(3월 11일), 전북권(5월 6일), 제주권(5월 26일), 전남동부권(6월 10일), 전북서부권(6월 12일) 등 총 6개 권역에서 진행됐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전남도는 최근 함평 맛나푸드에서 전남 김 제품의 베트남 수출 선적식을 가졌다.

전남 김, 베트남 대형마트 진출... 동남아 시장 공략

함평 맛나푸드 도시락김 등 1050박스 첫 선적

전남 김 제품이 베트남 대형 유통망에 입점하며 동남아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

전남도는 최근 함평 맛나푸드에서 전남 김 제품의 베트남 수출 선적식을 열고 글로벌 B2B 플랫폼 기업인 트릿지와 협력해 베트남 대형 유통망인 메가마켓(Mega Market) 입점을 성사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선적식에는 민순희 전남도 국제협력지원관을 비롯해 트릿지, 맛나푸드,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해 수출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수출되는 제품은 도시락김과 김자반, 김밥김 등으로 베트남 메가마켓의 자체 브랜드(PB) 상품으로 판매될 예정

이다. 첫 선적 물량은 40피트 컨테이너 1대 규모인 총 1050박스로 도시락김 350박스, 김자반 500박스, 김밥김 200박스 등 약 4300만원 상당이다.

특히 이번 수출은 단순한 해외 상담 지원에 그치지 않고 바이어 발굴부터 거래 성사, 수출 계약, 현지 유통채널 입점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실제 수출과 판매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출 연계를 맡은 트릿지는 전 세계 150여개국 식품 바이어 네트워크와 빅데이터 기반 바이어 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국내 농수산물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다.

전남도는 트릿지의 해외 네트워크와 전

남 김의 품질 경쟁력을 결합해 이번 메가마켓 입점을 성사시켰으며, 이를 계기로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시장에서 전남 김의 인지도를 높이고 수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베트남은 젊은 소비자층 증가와 함께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장으로, 김을 비롯한 한국 식품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입점을 발판으로 현지 유통망을 확대하고 신규 판로 개척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민순희 전남도 국제협력지원관은 "이번 수출은 전남 김의 우수한 품질 경쟁력과 글로벌 플랫폼의 해외 네트워크가 결합해 이뤄낸 성과"라며 "베트남 대형 유통망 입점을 계기로 전남 농수산물품의 수출시장 다변화와 안정적인 해외 판로 확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